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43-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3 성소수자 인식조사]:
성소수자의 직업,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

2023. 8. 16.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1

성소수자의 직업 종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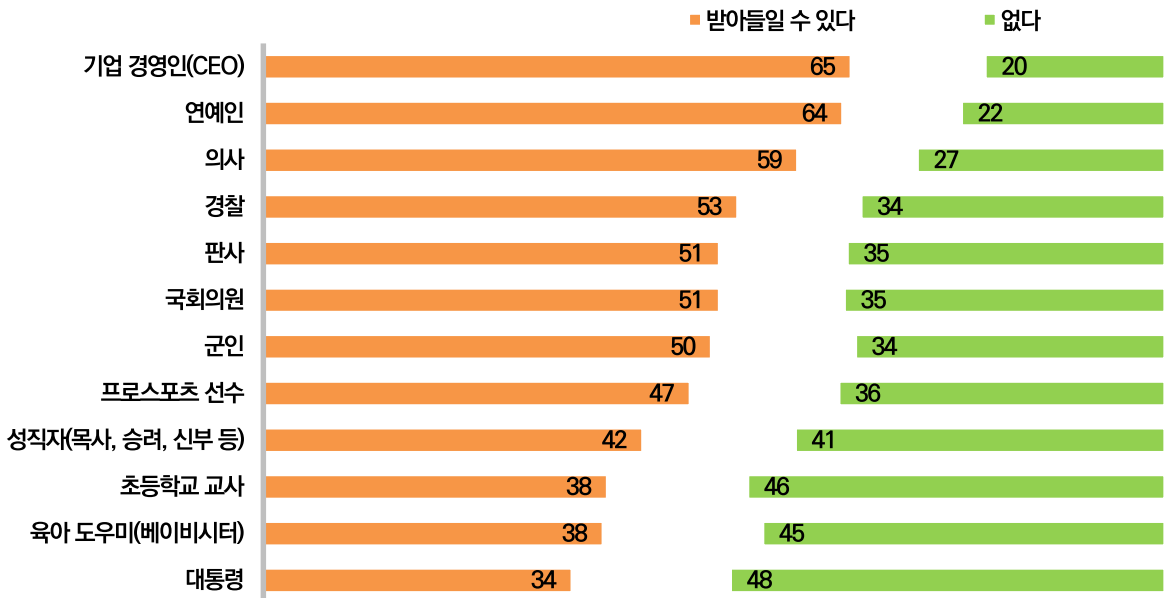
성소수자가 연예, 전문직, 공직에 종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 우세
보육·교육·종교 관련 직업 종사에 대해서는 의견 갈려

사람들은 성소수자의 직업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21년 조사에 이어 직업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성소수자가 '기업경영인(CEO)(65%)', '연예인(64%)', '의사(59%)'로 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60% 안팎으로 높다. 이어서 '경찰(53%)', '판사(51%)', '국회의원(51%)', '군인(50%)'과 같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도 과반을 넘는다.

다만 성소수자가 '성직자(받아들일 수 있다 42%, 없다 41%)', '초등학교 교사(받아들일 수 있다 38%, 없다 46%)', '육아도우미(받아들일 수 있다 38%, 없다 45%)'로 일하는 것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보육·교육·종교 관련직에 종사하는 것에 의견이 엇갈리고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조금 앞선다. 또한, 2명 중 1명은 성소수자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48%).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이번에 제시한 12개 직업 중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보다 14%포인트 높다.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의 직업 자율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나, 일부 직업에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다.

성소수자가 기업 경영인·연예인·의사로 일하는 것 '받아들일 수 있다', 60% 안팎으로 높아
성소수자 육아 도우미, 교사, 성직자에는 의견 갈려

(단위 : %)



질문: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다음 각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6. 9. ~ 6.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대 여성, 진보층,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집단은 성소수자의 직업별 종사 '받아들인다' 개신교,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응답 높은 편

20대 여성은 유일하게 모든 직업에 대해서 성소수자가 종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우세하다. 전체 응답보다 최소 18%포인트 높고, 포용 인식이 가장 낮은 성직자(63%), 대통령(66%), 육아도우미(66%)에 대해서도 60%를 넘는다. 앞서 20대 여성은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편이고, 이러한 태도가 성소수자의 직업 인식에까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2023 성소수자인식조사\] 성소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 성소수자인식조사\]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 분위기는?](#)). 진보층과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집단 역시 성소수자의 직업별 종사를 허용하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개신교 신자의 포용 인식은 타 종교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기업 경영인(57%), 연예인(54%), 의사(52%)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나 대통령(21%), 초등학교(23%), 성직자(23%)에 대한 포용 인식은 20%대에 그친다.

20대 여성·진보층·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집단, 성소수자의 직업 자율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개신교,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의 직업별 종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응답 높아

(단위 : %)

	'받아들일 수 있다' 응답 제시	사례수 (명)	기업 경영인 (CEO)	연예인	의사	경찰	판사	국회의원	군인	프로 스포츠 선수	성직자 (목사, 승려, 신부 등)	초등학교 교사	육아 도우미 (베이비 시터)	대통령
전체		(1,000)	65	64	59	53	51	51	50	47	42	38	38	34
성별														
남자		(496)	61	56	56	46	45	45	43	42	37	34	36	30
여자		(504)	69	72	63	59	56	56	56	53	47	42	39	39
성별 x 연령														
남자_18-29세		(87)	54	51	59	46	45	49	47	39	38	37	43	36
여자_18-29세		(79)	83	85	79	81	77	73	78	70	63	68	66	66
남자_30대		(78)	58	54	51	44	44	45	41	41	29	32	33	33
여자_30대		(73)	63	63	55	53	50	54	53	37	46	43	42	40
남자_40대		(92)	60	59	61	49	54	45	46	40	39	40	41	32
여자_40대		(89)	71	73	65	65	56	59	60	53	51	43	41	42
남자_50대		(98)	62	54	56	49	49	43	41	43	45	36	36	33
여자_50대		(96)	64	69	65	54	49	55	49	58	47	38	32	35
남자_60세 이상		(141)	68	60	53	42	39	44	40	44	35	27	31	21
여자_60세 이상		(167)	67	72	55	52	51	48	50	49	37	32	27	26
이념성향														
진보		(275)	79	78	74	69	66	67	64	59	56	55	56	52
중도		(346)	64	66	58	53	52	50	51	47	43	38	34	34
보수		(332)	58	55	50	42	38	40	40	42	30	26	28	22
종교														
개신교		(195)	57	54	52	42	35	35	40	42	23	23	25	21
천주교		(97)	78	73	71	66	61	61	56	55	34	42	43	36
불교		(180)	69	68	61	56	53	57	52	52	51	41	36	36
없음		(501)	65	66	60	53	54	53	52	47	48	43	43	38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호의적		(109)	81	82	79	78	78	77	74	69	65	68	68	63
중간		(399)	75	75	70	65	64	63	61	56	52	51	48	47
적대적		(493)	54	51	46	37	33	35	35	35	29	21	23	17

질문: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다음 각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이념성향 '모름'과 종교 '기타'는 제외함.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분류 기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감정을 5점 척도로 물어 매우 적대적이면 1점, 적대적인 편이면 2점, 적대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으면 3점, 호의적인 편이면 4점, 매우 호의적이면 5점으로 간주함. 4개 집단에 대한 점수가 평균 3점을 초과하면 '호의적', 3점이면 '중간', 3점 미만이면 '적대적'으로 분류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6. 9. ~ 6. 12.

2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에게 허용할 수 있는 것?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수술 후 전환한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허용할 수 있어’
다만, 전환한 성별의 스포츠 종목에 출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어’**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이하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의 생활 방식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2명 중 1명은 전환한 성별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트랜스여성의 여자 화장실 사용 허용 47%, 트랜스남성의 남자 화장실 사용 허용 49%). 허용 인식은 [21년 조사](#)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과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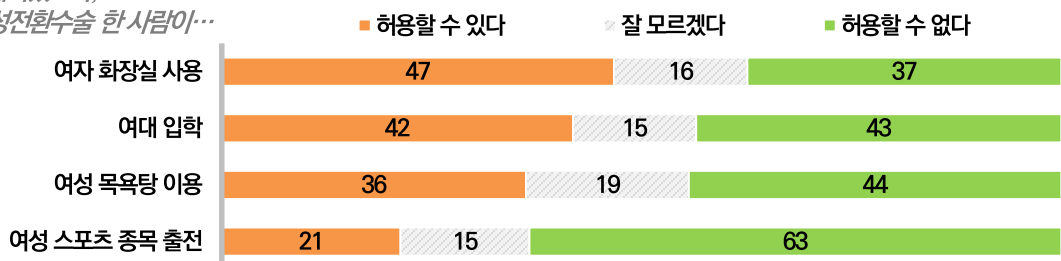
반면, 트랜스여성과 트랜스남성 모두 전환한 성별의 스포츠 종목에 출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우세하다(트랜스여성의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 허용할 수 없다 63%, 트랜스남성의 남성 스포츠 종목 출전 허용할 수 없다 54%). 성별을 전환했음에도 성전환 이전의 신체적 구조가 특정 스포츠 종목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트랜스여성이 여성부 육상경기에 출전한다면, 성전환을 하지 않은 여성 대비 신장이 클 수 있고 이러한 신체적 구조가 다른 여성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트랜스남성의 군입대를 허용한다는 의견이 50%(허용할 수 없다 35%)로 높은 편이다.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과 여성 목욕탕 이용, 트랜스남성의 남성 목욕탕 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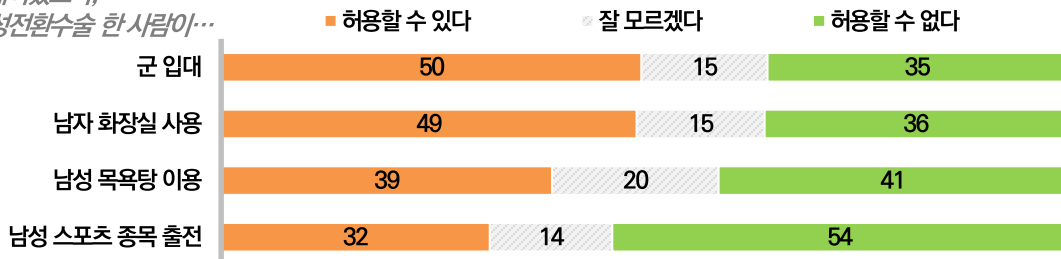
**전환한 성별의 화장실 이용, ‘허용할 수 있어’
그러나, 전환한 성별의 스포츠 종목 출전은 ‘허용할 수 없어’**

(단위 : %)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성전환수술 한 사람이...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 성전환수술 한 사람이...



질문: 여성(남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이 다음 각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6. 9. ~ 6. 12.

진보층,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이 중간 이상인 사람은 과반이 트랜스젠더가 전환한 성별의 화장실, 목욕탕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과 트랜스남성의 군입대 역시도 허용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진보층과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사람들이라도 트랜스여성이 여성 스포츠 종목에 출전하는 것, 그리고 트랜스남성이 남성 스포츠 종목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반면, 개신교 신자는 트랜스여성의 여자 화장실 사용·여대 입학·여성 목욕탕 이용·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을 모두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과반 이상이고 타 종교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마찬가지로 트랜스남성의 군입대·남자 화장실 사용·남성 목욕탕 이용·남성 스포츠 종목 출전을 모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보층, 트랜스여성의 여자 화장실 사용·여대 입학·여성 목욕탕 이용 ‘허용할 수 있어’ 반면, 개신교 신자는 ‘허용할 수 없다’ 응답 높아

(단위 : %)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성전환수술 한 사람이...	사례수 (명)	여자 화장실 사용			여대 입학			여성 목욕탕 이용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		
		허용 가능	허용 불가능	모름	허용 가능	허용 불가능	모름	허용 가능	허용 불가능	모름	허용 가능	허용 불가능	모름
전체	(1,000)	47	37	16	42	43	15	36	44	19	21	63	15
성별 x 연령대													
남자_18-29세	(87)	39	50	11	32	61	8	31	50	19	12	78	10
여자_18-29세	(79)	44	45	12	41	46	13	33	48	19	19	73	7
남자_30대	(78)	44	42	14	40	45	15	38	50	13	16	75	9
여자_30대	(73)	44	35	21	42	35	22	30	45	26	21	60	20
남자_40대	(92)	49	36	15	42	47	11	40	45	15	14	73	13
여자_40대	(89)	60	27	13	64	27	10	44	38	18	34	52	14
남자_50대	(98)	45	38	17	35	53	12	39	42	19	18	70	12
여자_50대	(96)	42	38	20	45	33	21	30	43	27	29	50	20
남자_60세 이상	(141)	50	34	16	44	43	13	42	41	17	21	65	14
여자_60세 이상	(167)	47	35	18	37	45	19	33	45	21	24	50	25
이념성향													
진보	(275)	59	31	11	57	35	8	46	40	14	21	66	12
중도	(346)	48	33	20	37	43	19	36	40	23	21	58	21
보수	(332)	38	48	14	36	52	12	30	53	18	22	69	9
종교													
개신교	(195)	35	51	14	29	57	14	25	59	16	17	67	17
천주교	(97)	47	35	17	45	40	15	41	40	18	29	58	13
불교	(180)	52	36	12	46	41	13	41	42	17	29	56	15
없음	(501)	50	32	18	44	40	16	39	40	22	19	66	15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호의적	(109)	59	27	14	63	22	15	49	29	22	25	57	18
중간	(399)	59	20	21	53	26	21	47	25	28	28	50	22
적대적	(493)	34	53	12	28	62	10	25	63	12	15	75	9

질문: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이 다음 각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이념성향 '모름'과 종교 '기타'는 제외함.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분류 기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감정을 5점 척도로 물어 매우 적대적이면 1점, 적대적인 편이면 2점, 적대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으면 3점, 호의적인 편이면 4점, 매우 호의적이면 5점으로 간주함. 4개 집단에 대한 점수가 평균 3점을 초과하면 '호의적', 3점이면 '중간', 3점 미만이면 '적대적'으로 분류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6. 9. ~ 6. 12.

진보층, 트랜스남성의 군입대·남자 화장실 사용·남성 목욕탕 이용 ‘허용 가능해’ 반면, 개신교 신자는 ‘허용할 수 없다’ 응답 높아

(단위 : %)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 성전환수술 한 사람이...	사례수 (명)	군입대			남자 화장실 사용			남성 목욕탕 이용			남성 스포츠 종목 출전		
		허용 가능	허용 불가능	모름	허용 가능	허용 불가능	모름	허용 가능	허용 불가능	모름	허용 가능	허용 불가능	모름
전체	(1,000)	50	35	15	49	36	15	39	41	20	32	54	14
성별 x 연령대													
남자_18-29세	(87)	49	40	11	41	48	11	32	50	18	20	73	7
여자_18-29세	(79)	59	31	10	43	41	16	37	42	22	31	59	10
남자_30대	(78)	48	43	9	49	38	13	39	47	14	22	67	10
여자_30대	(73)	53	26	21	44	33	24	32	39	28	23	53	24
남자_40대	(92)	46	45	9	49	40	11	40	48	12	24	63	13
여자_40대	(89)	59	28	13	63	27	10	46	35	19	47	42	11
남자_50대	(98)	43	45	12	47	39	14	41	44	15	31	60	9
여자_50대	(96)	47	32	21	49	32	19	35	36	29	39	43	18
남자_60세 이상	(141)	49	38	13	52	35	13	45	39	16	37	49	13
여자_60세 이상	(167)	48	29	22	50	30	20	39	37	24	35	43	22
이념성향													
진보	(275)	65	28	7	61	30	9	49	36	15	39	51	10
중도	(346)	49	33	18	49	32	19	41	36	23	30	49	21
보수	(332)	41	44	15	42	45	13	31	52	17	30	61	9
종교													
개신교	(195)	38	42	19	36	49	15	28	53	19	24	59	18
천주교	(97)	52	36	11	51	32	17	43	38	19	45	42	13
불교	(180)	50	34	16	52	36	12	42	42	16	37	49	13
없음	(501)	53	33	14	53	31	16	42	36	22	30	56	14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호의적	(109)	65	22	12	61	25	14	51	28	21	40	43	17
중간	(399)	57	24	19	60	20	20	49	24	27	38	43	19
적대적	(493)	40	47	12	38	51	12	29	58	13	25	65	10

질문: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이 다음 각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이념성향 '모름'과 종교 '기타'는 제외함.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분류 기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감정을 5점 척도로 물어 매우 적대적이면 1점, 적대적인 편이면 2점, 적대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으면 3점, 호의적인 편이면 4점, 매우 호의적이면 5점으로 간주함. 4개 집단에 대한 점수가 평균 3점을 초과하면 '호의적', 3점이면 '중간', 3점 미만이면 '적대적'으로 분류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6. 9. ~ 6.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6월 기준 전국 88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431명, 조사참여 1,328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5%, 참여대비 75.3%)
조사일시	• 2023년 6월 9일 ~ 6월 12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